

인니정부, 자국 커피산업 보호 위해 커피수입세 4배 인상 계획

인도네시아 정부가 현지 커피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부터 커피 수입세를 4배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현재 로스팅된 커피콩, 커피 가루, 인스턴트나 믹스 커피 수입업자들은 지난해 보다 5% 인상된 관세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 수입 관세의 2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농업부는 “내년 1월부터 국가적 기준을 적용하여 저품질의 커피 생산업자들을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에 이어 세계 4위의 커피 생산국으로, 매년 약 70만 톤의 커피를 생산하여 그중 65%를 수출한다.

한편, 커피 수출 대상국인 미국은 매년 인구 당 평균 4.3kg의 커피를 소비하고 핀란드는 11.4kg을 소비하는 것에 비해, 인도네시아는 1.1kg으로 비교적 적은 양을 소비하고 있다.

(출처 : 자카르타경제일보 2015/12/4)

□ 시사점

인니 정부의 자국 커피산업 보호 정책이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커피콩이나 커피가루 뿐 아니라 인스턴트나 믹스 커피 수입업자들에게도 관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